

민중 신학의 「민중」 개념 평가

(본고는 지난 1월 30일, 개혁주의신학협회 제38회 정기 총회 때의 특강 내용이다. 나 박사는 본고 내용 외에 대학생 200여 명을 지도하고 있는 자기의 목회 현장에서 대처(민중 신학에 대한) 한 실제적 문제를 많이 언급함으로써 갈채를 받았다.)

- 편집자 주 -

나 용 화

(광주 신학교 교수)

사회적 불의의 희생자들을 민중 신학이 민중으로 이해한다. '민중'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이래로 한국의 역사 학자들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그것의 정치신학적 개념은 성경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신학자(특히, 다가와 겐조)들에 의하여 민중 신학자들에게 소개되었다. '민중 신학'이 1970년대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생겨난 신학적 산물임은 사실이다. 따라서 민중 신학은 "1970년대에 한국에서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생, 노동자, 신문 기자, 교수, 농민, 작가, 지성인들의 정치적 체험에 관해 신학적으로 성찰한 것을 모아서 체계화한 것"으로 정의될 수가 있다. 이 민중 신학은 인권 운동에 중점을 둔다.

민중 신학은 전통적 콘스탄틴적 기독교를 지배 계층의 종교로 정죄함으로써 출발한다. 고난 받은 민중의 울부짖음을 전제하며, 구약성경에서 출애굽 사건과 히브리인의 가나안 정복 등을, 신약성경에서 십자가형 등을 전거로 삼고, 사회학적 성경 해석학을 오늘의 한국의 정치 사회

적 상황에 적용한다. 1961년 이래로 박 정권(朴政權) 아래서의 근대화 운동의 과정에서, 큰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종속 상황에 놓이게 되고, 높은 물가에 비하여 낮은 임금으로 말미암아 근로자들과 기업주 간에 부(富)의 분배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점 등이다. 이 같은 상황적 종속과 가난이 자극제가 되어 한국의 몇몇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민중 신학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민중 신학은 오랫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온 정치적 희생자들을 위시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자에게 주로 관심을 갖는다.

이 민중 신학은 현대 신학 사조의 한 가지이다. 다른 신학과 무관하게 결코 생겨나지 아니했다. 사실상, 한국의 민중 신학이 성립된 것은 세속화 신학, 과정 신학, 역사 신학, 남미의 해방 신학과 같은 현대 신학들을 종합하고, 농축하고 여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케 되었다. 이러한 신학들의 영향 아래 사회 정의를 목표로 하는 사회 참여에 관심을 갖는 행동

신학으로 나타난 것이다.

남미의 해방 신학자들이 그들의 혁명적 개념들을 신학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를 등에 업었듯이, 한국의 민중 신학자들도 그 공의회에 의해 자극을 받아 민중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게 되었다. 민중 신학자들은 가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었다(소위 '익명의 크리스찬')는 것을 듣게 되고, 남을 섬기는 곳에 세속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 라너의 '익명의 크리스찬'이란 개념을 통해서 민중 신학은 기독교적 신앙이나 복음을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한 한국의 민중(예, 농민 봉기를 일으켰던 동학도, 삼일 운동에 참여한 자들, 또는 4. 19 의거를 일으킨 학생들)을 확실히 하나로 통합시키기에 이르렀다.

또 한스 쾅과 같은 신학자로부터는 민중 신학이 보편주의에의 에큐메니칼적 개방성을 배워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한국의 민중 종교와 통전(統全)시키려 했다.

“오늘의 구원”을 주제로 한 방콕 대회(1972년 12월 하순에서 1973년 1월 초순까지)의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구원을 사회적 차원에서 찾고, 착취에 대한 경제적 정의, 정치적 억압에 대한 인간의 존엄, 소외에 대한 연대적 일체감, 그리고 절망에 대한 희망으로 정의한다. 이 방콕 대회에 영향을 받아 민중 신학이

“하나님의 선교”를 억눌린 민중을 위한 인간화와 사회 참여로 이해하였다.

민중 신학은 신학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과정 신학으로부터는 통전적 휴머니즘(인간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진보 과정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을 배웠으며, 역사 신학으로부터는 초월주의의 부인(否認)을, 남미의 해방 신학으로부터는 사회 경제적 성경 해석을 구조악의 사회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그리고 일본의 신학으로부터는 민중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인 정치적 개념과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 개념을 배웠다.

현대 신학의 이같은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민중 신학은 외래(外來)의 짜깁기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의 실질적 원리뿐만 아니라 형식적 원리까지도 한국 밖에서 왔고, ‘민중’ 용어마저도 일본에서 건너왔기 때문이다. 민중 신학이 강조하는 바 사회학적 성경 해석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인 멘덴홀과 크트발트의 봉기 모델 가설(假說)과 다가와의 갈릴리와 예루살렘 간의 계급 갈등 가설에 기초하여, 한국의 오늘의 사회 정치적 상황과 민중을 해석한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 경제적 사건들의 민중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예, 동학혁명, 삼일 독립 운동, 4. 19 혁명 등)들이 신학의 주요한 자료들이 되어

있는 것이다.

민중 신학은 우리말 '민중'에 대한 성경상의 동의어를 '암하레츠'(땅의 사람들), '오클로스'(무리), '하비루'(히브리인들), 미가서의 '내 백성'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찾으려 했다.

안병무는 키텔의 「신약신학사전」에 있는 자료들을 주로 분석하여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암 하아레츠'와 '오클로스'의 용법을 탐구했다. 그는 '암 하아레츠'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의 전반적인 용법을 보지 아니하고, 주전 1세기 초의 일상적인 용법을 기초로 한다. 주전 1세기의 용법에 의하면, '암 하아레츠'는 가난하고 힘 없는 계층, 율법을 배우지 못하여 무식하고 그래서 천대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이다. 지리적으로는 갈릴리가 '암 하아레츠'를 상징한다. 신약에서는 마가가 '암 하아레츠'를 언급하기 위하여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선택하였고, 그 시대의 사회의 희생자들을 지칭하는 배경으로 갈릴리를 택하였다는 것이 안병무의 주장이다. 그는 "오클로스"의 개념을 사회학적인 것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가가 그 단어를 "라오스"(백성)와 구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며, 갈릴리의 "오클로스"만이 민중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안병무는 그의 사회학적 편견 때문에, 키텔의 「신약신학사전」에 있는 "라오스"와 "오클로스"에

관한 스트라쓰만과 마이어의 글들 중 여러 중요한 점들을 놓치거나 왜곡시켰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사용되는 "오클로스"의 용법에 대해서도 관찰이 미흡하다. 첫째로, "라오스"에 대한 본래의 일상적인 성경상의 의미는 군복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고 공의를 시행하는데 참여하며 종교 의식에도 참여할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주로 말했다. "라오스"는 어떤 지배 공동체에 속하는 특권 집단을 결코 의미하지 아니했다. 둘째로, "라오스"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되 특별히 비유적으로는 기독교 공동체를 가리켰다(행 15:14, 롬 9:25). 셋째로, 안병무는 "오클로스"에 대한 신약의 용법을 편견 없이 소개하지 아니했다. 마가복음서의 용법만을 강조하고 요한복음의 용법 등을 배제한 사실이 그렇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어서도, 3장 7-9절에 보면 갈릴리의 큰 무리와 예루살렘 등지에서 온 큰 무리가 "오클로스"(무리)로 함께 지칭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절이 마태복음 4:24, 25와 누가복음 6:17, 18과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점으로 보아, 마가 용법이 마태나 누가의 것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라오스"와 "오클로스" 간에 구별이 없다. "오클로스"는 보통 명사로서 헬라계 유대인들이 일반적 의미로 사용해 왔던 "라오스"와 상호 교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네째로, 구약성경에서 "암 하아레츠"는 군복무를 감당

할 수 있는 장성한 백성들로서 재산이 있는 유대의 온전한 자유 시민들을 지칭한다(왕하 11:13-18). 그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여 왕을 갈아 치우기도 했다(왕하 12:20-21, 21-24).

또한 다섯째로, 복음서들에서 “오클로스”는 예수님의 사역의 역명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이적적 치유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단순히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오클로스”)과는 예수님께서서는 거리를 두었다(막 2:4-5, 3:9, 5:30-31). 안병무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클로스”를 무조건 용납하고 환영만 한 것이 아니다.

끝으로 “오클로스”가 모든 경우에 사회의 특별한 계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클로스” 가운데서 발견하는 반응은 결코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요 6:15, 66).

구약의 용어인 “하비루”(히브리인들)를 들어서 박준서는 민중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혈연에 기초한 인종적 집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근동 지방의 유랑자들에 대한 총칭으로 보았다. 약하고 억눌리며 정치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여 유랑하는 힘 없는 사람들이 “하비루”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준서도 인정하는 대로 요나서 1:9 과 빌립보서 3:5 에서 “하비루”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한 동의어임에 분명하다. “하비루”라는 이

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한 동의어임에 분명하다. “하비루”는 순수하게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언어, 관습과 생활 양식을 계속 보존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박준서는 이 구절의 “하비루” 용법을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배제시킨다. 그러나 이 용법은 창세기 14:13, 40:15, 사무엘상 4:6, 사도행전 6:1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더우기나, 아브람은 자기를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 소개하는데도(창 23:4), 헷 족속의 자손들은 그를 하나님의 용맹스런 군주로 부르고 있다(창 23:6). “하비루”인 아브람이 박준서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 사회로부터 멀리 받은 힘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가서의 “내 백성”과 “이 백성”이라는 문구들에 근거하여 문희석은 미가서의 “내 백성” 개념이 민중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중심되는 근거는 미가서 2:8이다. 그는 ‘개정 표준역’(RSV) 영어 성경의 번역,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에 대적하여 원수같이 일어났도다”를 따른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났도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이 이 번역을 취함). 이 번역에서 “내 백성”은 그들의 악한 행실들(참고, 미 3:4, 5)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으로 간주되어 있다. 사실상, 미가의 경우 “내 백성”과 “이 백성”은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되며, “야곱의 남은 자”(참고, 미 2:12, 5:8, 7:18)와 대조되어 있는 것이다.

“민중”에 대한 또 다른 성경상의 동의어는 “가난한 자들”이다. 서남동은 가난의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신적 내면적 겸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외적 억압이나 착취에 의한 경제적 가난을 일반적으로 강조한다. 그래서 민중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문구보다는 누가복음 4장 18절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선호한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의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이야기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 등을 민중으로 간주한다. 정치적으로 억눌린 자, 경제적으로 착취당한 자, 문화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가난한 자요 민중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억눌린 자들만이 아니고, 주의 법도로 가르침을 받는 죄인들이다(시 25:8-10). 성경에서의 가난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항상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가난하며 심령이 경건하고(시 86:1-2, 마 5:3)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가리킨다(시 119: 67, 71).

사실상, 누가복음 4:18 이하의 말

씀이나 마태복음 5:3 이하의 말씀은 이사야 61:1, 66:2, 시편 34:18 등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 구절들에 의하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겸비한 자라는 개념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경제 사회학적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고, 역대하 28장 8-1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야고보서 2장 5절은 야고보서 1장 9, 10절에 비추어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은 마태복음 12:50에 비추어서 각각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에 비추어 해석하게 되면, “가난한 자”나 “민중”이 사회학적으로, 아니 계급 갈등의 관점에서 해석될 이유가 없게 된다.

민중 신학은 “민중”에 대해 계급 투쟁 관점에서 이해한다.

민중을 순박하고 무죄한 사람들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도 부자들처럼 사악할 수가 있고(렘 5:1-13), 부자도 가난한 자처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형제로 불리울 수가 있다(약 1:9, 10). 그런 까닭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의 분쟁이나 재판 소송에 있어서 두호(斗護)해서는 안 되며(출 23:3), 부자라고 해서 우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약 2:3). 민중 신학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요(3:10),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 2:3)라고 말하는 성경의 인간관(人間觀)과 크게 상충된다.

민중 신학은 그것의 편견적인 사회학적 성경 해석 때문에 신관이나 기독교론, 성경론, 죄와 구원에 관한 입장, 교회론 등에 있어서도 탈기독교적(脫基督敎的) 반신학(反神學)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에 대하여 그것의 일방적 타계주의(他界主義)와 개인주의적인 형식적 경건주의(敬虔主義)를 비판하고, 복음을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몸으로 살 것을 강하게 도전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민중 신학이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민중 신학이 한국의 정치

적, 경제적 현실과 구조악에 희생된 계층을 분석함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학적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성경과 기독교를 크게 왜곡시켜 놓았다. 그리고 민중을 보는 시각이 민중 봉기 사건에 근거하고 계급 갈등 측면에서 설정되는 까닭에 성경의 인간관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다.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 관계를 강조하고, 민중 봉기 모델 가설에 근거하여 성경의 “오클로스”를 이해하려고 하면, 마르크스주의 색채를 띤 민중만이 부각될 뿐이다.

박윤선 박사 기념 논문 현상 모집

* 개혁주의 신행협회에서는, 본 협회의 창립 회원인 고 박윤선 박사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제 목 : 「박윤선 박사의 성경관」
- 원고 매수 : 70 매 (200자 원고지) 내외
- 현 상 금 : 100만 원 (당선작 1 편 50만 원, 가작 5 편 각 10만 원)
- 마 감 일 : 1989년도 9월 30일
- 응모 자격 : 제한 없음
- 당선작 발표 : 본지 (「개혁 신앙」) 겨울호 (12월 1일자 발행)
- 기 타 : 응모 원고는 반환치 않으며, 응모자에겐 기념품 증정

개혁주의 신행협회 / 120-013 서울·서대문구 충정로 3가 3-47